

Issue Comment

- ✓ 중국, 7월부터 일반 소비품 평균 수입관세율 8.8%p 인하
- ✓ 현행 잠정세율은 이미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 영향 미미할 것
- ✓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수요 증가에는 소폭 기여할 듯

중국 소비재 관세 인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① 중국 정부, 일반 소비품 1449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 발표

5월 31일 중국 재정부는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1) 의류/주방/스포츠용품의 평균 수입 관세율 15.9%에서 7.1%로, 2)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평균 수입관세율 20.5%에서 8.0%로, 3) 수산물과 음료수 등 가공식품의 평균 수입관세율 15.2%에서 6.9%로, 4) 샤워, 세안, 스킨케어 등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평균 수입관세율 8.4%에서 2.9%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관세 인하의 실시 목적을 '시장 개방의 확대, 소비자 니즈 충족,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국산 제품의 품질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② 금번 관세 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다만, 금번 관세 인하를 통해 새로 적용된 최혜국(MFN) 수입 관세율¹이 현행 잠정 세율²과 같거나 소폭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잠정세율이란 최혜국 협정세율 등을 적용하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로서 2015년부터 중국은 지속적으로 잠정세율을 낮춰왔으며, 특히 화장품 및 생활용품 수입품에 적용되고 있는 잠정세율은 2~5%로 이미 상당 부분 낮아진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최혜국(MFN)세율 인하는 실질적인 관세 인하의 효과보다는 현행 잠정세율을 고정세율로 변경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나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화장품 산업

수입품 관세 인하 영향은 수입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산업에서 그나마 가장 잘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진행한 유통업체 및 소비자 대상 '수입상품 수요 조사'에 따르면 자국산 제품을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의류 유통업체들과는 달리 화장품의 경우, 유통업체 및 소비자 모두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유통업체 중 23.7%가 '매장 상품 구성 중 50% 이상이 수입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답했으며, 9.2%의 유통업체들과 38%의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내 수입 화장품 구매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향후에도 중국인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최혜국(MFN) 세율: 최혜국 세율은 '수출입 세칙' 제 10 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2 잠정세율: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

④ 관세 인하는 향후 중국 내 화장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소폭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 있음

한편, 이번 소비재 수입 관세 인하로 중국 내 화장품 등 일부 산업의 전반적인 가격은 낮아진 관세만큼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입 화장품 판매가격이 낮아진 관세로 인해 1~2% 저렴해진다면, 수입품이 현지 생산 제품들에 비해 가격 매력도를 가지기 때문에 향후 현지 화장품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반적으로 소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절대적인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중국 향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금번 인하가 판매량(Q)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 뉴스이며, 현지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격 매력도에 대한 수혜도 조금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⑤ 다만, 관세 인하에 따른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및 소비 수요 감소 우려는 기우

이번 관세 인하 정책은 명품 등 고가 소비재에 대한 중국인들의 늘어나는 해외 소비를 자국으로 돌릴 수 있는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금번 정책으로 인한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수 감소 및 한국 내 쇼핑 수요 축소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1) 중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는 기본적으로 쇼핑보다는 관광의 목적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인바운드 관광객 축소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판단이며, 2) 면세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수입품의 관세 절감 혜택보다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또 앞서 언급 했듯 3) 실질적인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번 관세 인하가 중국인의 한국 내 소비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5월 31일 중국 상무부 관세 인하 방침 발표문 원문

<p>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降低 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p>	
<p>税委会公告 (2018) 4号</p>	
<p>为进一步满足人民美好生活需要, 推动供给侧结构性改革, 主动扩大开放, 自2018年7月1日起, 降低部分进口日用消费品的最惠国税率, 涉及1449个税目。因最惠国税率调整, 自2018年7月1日起, 取消210项进口商品最惠国暂定税率, 其余商品最惠国暂定税率继续实施。具体税目及税率调整情况见附件。</p>	
<p>特此公告。</p>	
<p>附件: 1. 进口日用消费品最惠国税率调整表 2. 进口商品最惠国暂定税率调整表</p>	
<p>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2018年5月31日</p>	

자료: 중국 상무부, SK 증권

주: 5월 30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세 인하를 발표한 후 하루 만에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 리스트를 공개함

[그림 2] 중국 주요 소비품 MFN 수입 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품목명	현행 MFN(%)	현행 잠정 세율(%)	조정 후 7월 1일부 MFN(%)
식품	라면	15	-	10
	생수	20	10	5
	과일주스	20	-	5
화장품	향수	10	5	3
	색조화장품	10	5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1
	모발용 염색제	15	5	3
	치약	10	5	3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6~10
	신발	24	12	10
가전	냉장고	30	15	8
	드럼세탁기	10	-	7
	전기밥솥	32	8	7
생활용품	생리대	10	5	4
	칫솔	25	8	8

자료: 중국 상무부, KOTRA, SK 증권

주1: 잠정세율이란 최혜국 협정세율 등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
주2: 최혜국세율이란 WTO 회원국 및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